주류(主流)에서 주변인을 지나 나그네로

(벧전1:1~12)

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주류에서 주변인을 지나 나그네로>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주류(主流)에서 떠나서 경계인의 이상을 지나 나그네로 온전히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베드로전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주후64년경에 그러니까 로마에서 네로의 박해가 시작해서 로마제국 전역으로 박해가 퍼져나갈 즈음에, 이러한 박해의 분위기를 앞두고, 그리고 또 로마 정부의 박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박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으로부터의 박해라든지 또 이단으로부터의 위협 이라든지,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베드로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박해나 핍박으로 인해서 잃게 되는 세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얻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이 모든 환란을 이겨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오늘 베드로전서의 핵심 사상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나그네라는 단어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나그네 되어 살자! 나그네 되어 살자!
그래서 그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라는 얘기를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다 나그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나그네가 그렇게 간단한 나그네가 아니고, 그냥 되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됨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목에서, 주류(主流)에서 경계인을 지나 나그네로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주류(主流), 주류(主流)가 뭡니까 여러분.
주류(主流)와 나그네가, 단어 상 반대말은 아니지만 나그네의 의미를 극명하게 대비시켜 주는 단어가 바로 이 주류(主流)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류(主流)란 어떤 단체나 소속된 사회 속에서 다수파를 말하는 거예요.
다수파라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돼 있지 않습니까?
결정권을 갖고 있는 단체, Mainstream, 그리고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leading group, 뭐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권력과 힘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다수파라는 얘기인데, 이 주류(主流)! 나그네 하고는 너무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나그네는 뭡니까, 여러분.
본고장을 떠나서 타지에서 잠시 머물고 있거나 떠돌고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류(主流) 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그래서 나그네는, 이 사회의 주류(主流)에 속한 사람일 수가 없다는 것, 이게 참 우리가 베드로사도가 말하고 있는 나그네라는 단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는 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나그네다, 라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 절대 주류(主流)가 될 수 없다는 얘기와 마찬가지 얘기라 이겁니다.
주류(主流)에 끼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지요.
이민 가서 살 때에, 주류(主流)에 속하지 못한 자의 처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고 경험적으로 또 느끼게 됩니다.
그 나라 안에서, 예를 들어 제가 유학했던 독일에 있는 동안에, 독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일 사람들의 문제는 전혀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나는, 잠시 머물고 있는 그 동안에 내가 이루어야 될 다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을 뿐이지, 독일 사람들과 만나고 독일 사람들과 대화하고 독일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선거가 있다, 독일이 유럽 공동체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가 한참 오고 갈 때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류(主流)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독일 국민이면 누구나 다 유럽 공동체에 속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독일의 마르크화가 유로화로 바뀔 때에, 당장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절대 주류(主流)에 속할 수가 없지요.
근데 교회가 현실적으로 보면, 나그네 된 교인들로 채워져 있지를 않아요.
전부 주류(主流)를 향해서 가거나, 주류(主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면 주류(主流)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그네라는 규정에 맞으려면 이탈해야 되는 거예요, 주류(主流)에 속해 있으면 안돼요.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NASB라는 영어성경에서 본문에 나오는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 'reside as aliens'라고 그랬어요.
'reside'라고 하는 게 머물다, 거주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Aliens는 타향사람으로, 외지에서 온 사람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이처럼 reside as aliens 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미국 영주권은 영주권자를 뭐라고 표기하느냐 하면, alien resident라고 표기 합니다.
그러니까 reside as alien이나, alien resident나 이게 같은 말이에요.
타향에서 온 거주민이 alien resident고, reside 라는 건 resident는 명사이고, reside 동사는 머물고 있는데, 외지의 사람으로서 머물고 있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단어는 같은데 내용적으로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NASB 영어성경에서 번역해 놓은 reside as alien은 나그네라고 하는데, 미국의 영주권자를 표현하는 alien resident 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왜 나그네가 아닙니까?
단어는 같은데 나그네가 아니에요, 영주권자들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영주권자들은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의 시민권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에 주류에 속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류(主流)에 속하기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나그네일 수가 없어요.
나그네는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사회에, 주류(主流)에 속하기를 원치를 않아요.
주류(主流)에 속하라고 해도 원치 않습니다, 나그네는 그걸 뿌리칩니다.
왜냐하면 자기 본고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고장이 아니고, 내가 속하고 싶은 고장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말은 alien resident,요 reside as alien으로서 영어성경에 번역된 나그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영주권자들이라 이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왜 믿느냐 물어보면 말로는 어떻게 대답을 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의식은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류(主流)에 속하고 싶어 합니다.
영주권자들로서 시민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의 시민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민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주류(主流)에 속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내가 속한 단체가 주류(主流)가 되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돈 좀 많이 벌어서 떵떵 거리면서 살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일류 대학에 척척 들어가는 자식들 두고, 이렇게 좀 살아보고 싶다, 이게 바로 의식 자체가 주류(主流)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주류(主流)에 속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그네일 수가 없다 이겁니다.
나그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한 단어를 수식하기 위해서, 사도베드로는 기독교신학 책에 전체를 동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베드로는 기독교가 표방하는 모든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나그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1, 2, 3 절까지 되는 말씀입니다.
하아~ 놀라워요.
기독교가 지금 뭐 어마어마한 신학적 가르침의 내용들을 갖고 있고 성경공부의 내용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부 출신인 사도베드로가, 한 구절로 아주 명확하게 모든 신학을 총망라하고, 그 모든

신학적인 내용, 신앙적인 가르침이 함축되어 내 것이 된 사람을 나그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1절에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곳 등등에 '흩어진 나그네' 해놓고, '곧' 하고 2절에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2절 안에 기독교신학의 내용이 다 들어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신다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그리스도의 합동사역이 전제되어야만 나그네가 되고, 그 합동사역이 내 것이 된 자들이 나그네입니다.

무슨 나그네라 그러니까 뭐 낭만적으로만 생각하셨습니까?
말하기 좋아 나그네인 줄 아셨습니까?
그냥 막연히 '우리는 시민권을 천국에 둔, 천국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그네야'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땅을 향하신 모~든 역사, 성령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게 총망라되어서 내 것이 된 사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동사역이 내 것이 된 그 사람이 나그네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군자를 말하고 있고, 이 도가에서 성인을 말하고 있고, 도사를 말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나그네를 말하고 있다고 봐도 좋아요.
불교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보살을 말하고 있을 때, 그리고 플라톤이 이상적인 정치인으로서 철학자를 들고 있을 때, 우리는 나그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나그네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나그네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고, 나그네로 살다 나그네로 죽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함축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도대체 뭐냐?
이걸 우리가 알고 베드로전후서를 이해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 사역의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나를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아버지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

냐 하면 미리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여러분, 하나님아버지가 나를 미리 아셨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이런 의미에서 미리 아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지적 차원에서의 아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기 길 가는 사람이 있을 때, 혹시 저기 길 가는 저 아저씨 알아? 어, 나 잘 아는 사람이야, 내가 저기 등산동호회원인데 등산동호회회장님이야.
이렇게 아는 걸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어요, 미리 아심이라는 얘기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랑 관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실 때, 아버지로써 관계하려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하나님 속에 있던 계획되어 있던 나의 아버지로 자처하셨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얘기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아버지가 나를 미리 아신다는 것은 조물주로서 예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조물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걸 미리 다 아실 수 있어요,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당신이 생각하신대로 이끌어 질 것이고, 당신을 거역하는 자들의 범죄행위까지도 아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로서 미리 아신다는 것은, 나를 관계하는 자로서 안다는 얘기입니다.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면, 이제 그냥 아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를 해주여야 됩니다, 거룩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나그네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를 미리 관계하신다,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관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는 내가 태어났으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 미리 태어나기도 전에 관계하시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내 쪽에서 response 응답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얘기에요.
거룩하게 하신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와 관계 속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응답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주류(主流)에 속하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류(主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

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주류(主流)에 속하기를 원하지.
세상이 원하는 주류(主流)에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정한 가치들을 획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지위라든지, 돈이라든지, 무병장수라든지, 일류대학이라든지 뭐 경쟁에서 일등 하는 거라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만족과 기쁨의 이유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이 주류(主流)에 속하게 해 줄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주류(主流)에 속하게 해줄 수 있는 근거들이 내게 충족될 때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거룩하다는 것은 그것과 다르다는 얘기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내 본고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아들로 삼으신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 집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거룩하게 구분이 됩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유일한 이유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아들로 택하셔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많~은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가져야 세상에서 주류(主流)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마는, 너는 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관계를 맺은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기뻐하고 만족해야 될 이유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뿐이야,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만 기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볼 때, 순종함으로써 '예~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아버지 한 분만으로 기쁨으로 만족의 이유로 삼고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에 결심이 되는 것, 이게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별의 별 얘기를 다해요, 부흥사가 오고 목사님이 날마다 예수 잘 믿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면은, 이 땅에서 복 받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모든 가족들의 일이 만사형통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상하게 그게 귀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만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선, 어쩌다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합시다!'라는 말을 으레 하는 말처럼 했는데도 그 말에 콱~ 꽂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이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해야 됩니다'라는 이 말이, 사실 미치광이 말이거든요.
이 세상의 주류(主流)에 속하고 싶은 마음에 안달이 나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미치광이 소리인데, 이 말이 마음이 콱~ 꽂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이 말이 꽂히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미리 나랑 관계를 맺기로 결정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건 정말 신비한 거예요.

사실 제가 아침마다 지금 떠들고 있는 모든 얘기는, 이 세상에서 주류(主流)에 속해서 살고 싶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외계인의 소리입니다.
외계인, alien의 소리에요 alien.
영화 Alien의 외계인들 막, 괴상하게 생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괴상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라, 괴상하게 생긴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alien의 소리에요.
이게 정상적인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살아 있으면서, 깨어 있으면서 얼마나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살아도 지금 자기계발서를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적용시켜가면서 살아도 부족할 판인데, '자기계발서 왜 읽냐 응?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왜 읽냐?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자, 우리의 기쁨은 하늘에만 있다.'
이런 얘기는 말이 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받아들여요.
이게 바로, 나그네가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택하셔서 아들로 삼아주신 역사,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 생각이 마음에 철석같이 받아들여지는 사람, 성령의 역사.

이게 들어가야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그네 되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내 만족과 기쁨의 이유가 된다.
근데 안돼요, 이상하게.
분명히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에 100%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돈이 없어 걱정이 되고,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지질 않아요, 실제로!
근데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이건 성령님의 역사 아니면 못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 뿌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의 살이 찢기시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 박히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미리 아셔서 아들로 삼으셨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써 성령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아버지 한 분만이 유일한 기쁨의 이유다, 라고 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 내가 이제 아버지 한 분만으로 기뻐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순종하는 마음까지 가졌는데, 실제로 되지를 않아요, 내 존재가 죄이기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쫓아가고 세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떡하느냐?
아래 얘기가 이제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선 이해를 갖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실제로 아버지가 유일한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느냐?
소망의 단계로 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 세상에서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소망이라도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번 쭉 읽어보시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환난 중에 왜 기뻐합니까?
환난을 통해서 이 세상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뚜렷해지니까 더 기뻐지는 거지요, 하늘에서의 누릴 영광이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게 되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 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도 정이 들려면 만나는 시간이 반복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우리 인격이 실제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관계에 들어가려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어야만 그 시간동안 교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친해지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고백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내 마음이, 진짜 친해지는 거예요.
제 아내와 제가 30년을 넘게 사는데 얼마나 친해졌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진짜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피 뿌리는 역사가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내 것이 돼요,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시간 동안에, 진짜 영이신 하나님과 내 마음이 교제를 함으로써 점점 더 친밀함의 농도가 깊어지고 깊어질 때, 이 세상에서 완전한 나그네가 돼 간다는 겁니다.
나그네가 된다는 거는, 주류(主流)에 속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좀 이끌어 주세요!' 해도 원치 않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임금 되어 달라고 할 때 뿌리치신 것처럼.
이게 나그네라는 거예요.
왜? 내 본고장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고장, 이 세상이라는 사회 속에서 주류(主流)에 속해서 할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 왜 사는 겁니까?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만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지, 이 주류(主流)사회에 속해 가지고 세상에서 정해 놓은 기쁨과 행복의 기준에 맞춰가면서 행복해지려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류(主流)의식에서 떠나서, 주변인.
주변인은 뭡니까?
주류(主流)에 속하겠다는 마음을 버리지도 못하고, 새로운 세상에 완전히 적응하지도 못하고, 경계인인 거예요, 경계인.
영주권자들을 주변인이라고 그래요, 경계인.
미국의 영주권자, 시민권을 원하고 있는 그런 영주권자가 아니라, 완전히 주변인의 자리에서 떠나서 나그네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사랑을 다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총의 세계가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완전한 나그네가 되어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